

## 기행수필 (下)

# 국 제 바 가 지

신 정 일

(본지 편집위원, 유일농원 영업부장)

반갑게 만나 사진도 찍고, 동전도 던져 넣으면서 놀다가 이제 가야될 때쯤에서 그 아랍인이 무얼 좀 마시러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니 나는 마시는 것보다 뭘 좀 먹어야겠다. 바로 전에 식당을 보고 왔으니까 그곳으로 가겠다”는 필자에게 “이 쪽에 가면 마실 것도 있고 저녁도 있다. 같이 가서 먹자”고 하기에 “나는 스파게티를 먹겠다. 스타게티도 있느냐”니까 물론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보통의 길거리에 일반적인 집으로 들어가는데 나비 넥타이를 맨 중년신사가 반갑게 맞이 하면서 안내를 하기에 필자는 언뜻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저녁을 먹으러 왔다. 스타게티가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내구조나 장치가 프랑스의 일반식당과는 다른 술집과 같은 분위기를 대뜸 느꼈지만 실내도 조용하고 손님들도 별로 없어 “까짓 스파게티와 맥주 한두병 먹고 가는데 어떠랴!” 싶어 안내하는 데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어서 젊은 웨이터가 나와 “마시는 것은 무얼로 하겠느냐?” “나는 마시는 것 보다 스파게티를 먹겠다” 그 웨이터는 웃으면서 먹는 것은 먹는 것이지만 음료수가 있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그렇군, 그러면 음료수는 맥주로 하자”고 한뒤 기다리고 있는 그 웨이터가 아가씨 둘을 데리고 와서 우리 둘의 옆에 하나씩 앉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가씨를 원치 않는다. 돌려보내라” “아니 그들은 단순히 시중을 들 뿐이다” “너희들이 시중드는 대신에 요구하는 돈은 얼마인가?” “우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 단지 심부름만 할 뿐이다” 이런식으로 우리들은 합석이 되었고, 맥주는 금방 마셨고, 샴페인 한잔만 사달라는 아가씨의 요청에 샴페인이 나왔

다. 음악이 흐르고 잔뜩 경제심을 가지고 홀 안을 탐색하고 있는 필자에게 연방 즐겁게 조잘대고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 나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유고슬라비아인이다. 나는 4 개국어를 할 줄 아는데 당신은 몇 개 국어를 말하느냐? 자기 여동생은 유고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국제경찰(인터폴)에서 일하고 있다...” 등등, 수없이 조잘대면서 춤을 한번 같이 춰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이봐 아가씨 나는 춤이라면 막대기다. 춤보다도 배가 고프니 빨리 스파게티나 갖다달라고 해라” 곧 나온다는 스파게티는 지연되고 샴페인잔이 조금씩 비워지면 중년신사가 와서 절금 절금 따워주고, 아가씨는 자꾸 춤추기를 즐겼다.

“춤을 좋아하느냐?” “매우 좋아한다” “나는 춤을 전연 못 춘다” “아니 그런 것 같지 않다. 스포티하고 매우 잘 출 것 같다” 하도 즐라대는 바람에 “그러면 스파게티를 먹고 취 주마” “아이 좋아라. 식사하고 춤춘다는 약속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조금 뒤에 식사가 나왔고 음식을 먹고 난 뒤 할수없이 홀에 나가 억지춘향으로 디스코를 한바탕 추고 들어왔다.

우리나라에도 변두리 맥주홀에 가면 아가씨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팁을 받아내는 곳이 많지만, 이때부터 필자는 이 춤도 의무적으로 아가씨들에게 맡겨지는 일종의 규율이 아닌가하고 생각되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춤을 추고 난 뒤 조금 더 앉아 놀다가 이제는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아가씨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우디 아랍인에게 “나는 이제 가겠다. 당신 더 놀고 오겠느냐?”고 하고 계산서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젊은 웨이터가 가져온 필자에 대한 계산 금액이 불경 28만 리라였다.

이탈리아의 화폐 “리라”는 우리나라 화폐 “원”화보다 가치가 조금 더 낮아 그 비율이 약 3:4 정도가 되었고, 그렇게 환산하면 대체적으로 약 두시간 정도의 시간에 맥주 한잔 먹고 샴페인 조금 마시고 아가씨와 디스코 한번 춘 댓가로 우리나라 화폐가치로서 약 21만원의 청구서가 떨어진 셈이었다. 벌칙 화가 난 필자와 웨이터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것이 뭐냐?” “당신이 내야 할 금액이다.” “내가 뭘 먹었다고 이렇게 많냐?” “이 금액은 많은 것이 아니다.” “이봐 당신들 매우 나쁜 사람들이다. 나는 맥주 한잔과 스파게티 그리고 샴페인 몇 잔 먹은 것 뿐이다. 아가씨의 봉사료는 없다고 당신이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28만리라인가?” “당신이 먹은 것은 샴페인 몇잔이 아니라 4 병이다? “이봐 무슨 소릴 하는가? 내가 마신 샴페인을 모두 모아도 반병도 안 될 것이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못 쓴다.” 사실 샴페인 병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뒷병정도로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아가씨와 절끔먹은 것 모두 합해야 반병이 안 될 것은 분명했는데 그들은 한번 부어 줄 때마다 그것을 한병

으로 계산하여 바가지를 씌울려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 옆의 아가씨는 놀란듯이 멍청히 쳐다보고 있고 그 웨이터는 싸우면서도 반드시 “나의 친구여,”하는 말을 잊지 않고 사용했다. 필자는 이왕 벌어진 일이라 수습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좋다. 나는 돈도 없고 또 있어도 그런 부당한 금액은 지불할 수 없다. 오늘의 저녁값은 5 만리라를 주겠다. 그 이상은 돈이 없다.”

“당신 호텔이 어디냐?” “나의 호텔은 왜 묻는가?” “당신 호텔의 가방에는 돈이 있을 것 아닌가?” “천만에, 호텔방에도 돈이 없다.” 당신이 온 파리는 이것보다 더 비싸다. 나이트 클럽은 이정도는 지불해야 한다. 달라나 프랑화도 좋다. 그것을 달라.” “나는 달라도 없고 프랑화도 없다. 5 만 리라만 주겠다” 이렇게 한참 싸울 때 옆의 사우디아라비아인이 불쑥 끼어 들어 필자에게 “왜, 무슨일이냐?”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한다. 나쁜 친구들이다.” “그러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얼마냐?” “아니 절대 그럴필요 없다. 나쁜 친구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너는 잠자코 있어라.”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웨이터가 “그럼 좋다. 당신이 가진 돈을 모두 내 놓아 봐라. 가진 돈만 받겠다.” 필자는 청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거칠게 끄집어 내어 헤아려 보니까 11만 리라가 그 쪽 포켓트에 들어 있었다.

“당신이 가진 돈이 11만 리라가 아닌가? 그것을 모두 달라” 순간 적으로 필자는 “5 만 리라는 로마에서 파리로 돌아 갈 기차비다. 당신도 알지 않는가? 기차티켓이 5 만 리라이다.” 그리고는 5 만 리라를 내 주었다. “그러면 10,000 리라만 더 달라.” 결국 6 만 리라 (한화 약 45,000 원)의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오면서 애초의 사우디 아라비아인이 국제바가지를 씌울려고 한 최초의 사깃꾼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다행히 그 그물을 잘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럭키회사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한다고 까지 들러낼 수 있는 그들의 실력과 치밀성에 이탈리아인들의 높은 사깃성을 새삼스럽게 재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산타루치아를 찾아서

이탈리아의 인상이 첫날 밤의 바가지 소동으로 매우 나빠져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들의 기억에 매우 익은 나폴리를 구경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나폴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유럽의 기차는 영화에 보듯이 모두 칸막이 여객실로 분리되어 있다. 필자가 탄 객실에 최초에는 딸과 사위를 포함한 일단의 농촌가족이 탔다가 도중에서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탔는데 마치 드라큐라 같이 생긴 매우 언짢은 인상의 40~50 명의 중년사이이었지만 마침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 역시 나폴리에 가거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나폴리 사람들은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기분과들이지만 언제 슬쩍 지갑을 빼는지도무지 모를 정도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놈의 이태리는 어디를 가든지 소매치기, 사것꾼, 도둑의 위협이 떠나지를 않는 모양이다.

그도 도중에서 내리고 혼자 객실을 지키고 있는데(시간은 오후 4 시경) 문쪽에서 히피스타일의 장발을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엉거주춤 서서 겸연쩍은 표정으로 한국에서 왔느냐하면서 영어로 말을 걸어 왔다. 필자는 키가 자그마하고 호리호리하게 생긴 체격에 수줍은 미소를 띄고 있지만 “이 친구 이거 또 한 수 놓으려는 게 아닌가?”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나 웃으면서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밖의 복도에서 아까 조금 전의 이탈리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면서 유럽에서는 영어를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필자를 만나니까 반가워서 그런다면서 계속 복도쪽에 엉거주춤 서서 쭈뼛 쭈뼛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그의 고향은 베네첼라이고 현재 그의 부모들은 미국의 샌프랜시스코에 산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어느 정도 그 친구를 안심하게 된 것은 그의 영어 발음에서였다.

구라파쪽 사람들의 영어발음은 우리들과 비슷하고 결코 아메리카대륙의 영어같이 헛바닥이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은 본토박이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폴리가 무섭다는 그에게 왜 무서우냐니까 물론 소매치기 때문이라고 했고 결국 네덜란드에 있다가 비자유 호기간때문에 나폴리 앞의 어떤 섬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간다는 목공기술자를 걱정말라고 안심시켜가면서 동행이 되어 그날 밤을 나폴리의 같은 호텔에 묵게되었다. 이 베네첼라의 젊은 친구는 거리를 다닐 때는 필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그 날 저녁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웃 식당에서 측은하게 보인 그를 위해 금전적으로 다소간 여유가 있었던 필자가 그의 스파게티값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니 사실 오늘의 식사는 처음이라면서 돈이 얼마 없는데 대단히 고맙다는 것이었다.

산타루치아를 찾아 밝은 마음으로 나폴리를 찾았지만 거리는 질척거리면서 더럽고 하늘은 항상 우중충하게 비를 뿌리고 시민들은 모두가 도둑과 같이 보이고 씩씩한 기분을 가진채 파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결국 필자는 나폴리에서 찾지 못한 산타루치아를 미국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해변에 이어진 고속도로 옆의 바다를 바라보는 관망대(View Point)에서 태평양의 잔잔한 물결과 따뜻한 태양아래서 그 산타루치아를 보았다.

아마 유럽의 산타루치아가 살기좋은 아메리카대륙으로 이민을 간 모양이었다.